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철학의 기독교 변증학적 공헌*

The Contributions of Alfred North Whitehead's Philosophy to Christian Apologetics

김성원 (Sung-Won Kim)**

ABSTRACT

Alfred North Whitehea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hematicians and philosophers of the 20th century. As mathematician Whitehead endeavored, with Bertrand Russell, to lay the logical foundations to mathematics. Their works mark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development of symbolic logic. As philosopher Whitehead performed a thorough philosophical critique of modern science and philosophy. He also constructed an original philosophical cosmology for our time. His philosophical works show a solid way to overcome the essential weaknesses and pitfalls of modern science and philosoph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hilosophy of Whitehead, which is often called Process Thought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apologetics. Analyzing major works of Whitehead, this article claims and explains that Whitehead's philosophy severally contributes to Christian apologetics.

This article follows the following order. First, Whitehead's philosophical career and his major publications are briefly introduced for the readers from diverse majors and backgrounds. Second, Whitehead's major philosophical contributions ar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apologetics. We find five such contributions: Whitehead's critique of scientific materialism, his critique of philosophical materialism, his monistic ontology and epistemology, his theistic cosmology and finally his Platonic view on the aim of philosophy. At the end this article also explains the limitedness of Whitehead's philosophical contributions to Christian apologetics.

Key words: Whitehead, apologetics, scientific materialism, Process Philosophy, epistemology, cosmology

* 2020년 05월 12일 접수, 06월 13일 최종수정, 06월 14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0년도 서울신학대학교 연구비를 지원받아 집필되었다. 이 논문은 2017년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존 웨슬리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저자가 특강한 미출판 원고의 내용 일부를 사용하였다.

** 서울신학대학교(Seoul Theological University) 설교대학원 부교수 (조직신학 전공),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9번길 52(소사본동), sungwonkim@stu.ac.kr

1. 서론

1. 이 논문의 목적과 범위

20세기 초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는 서구 사상에 큰 획을 그은 위대한 사상가이다. 화이트헤드의 주된 학문적 공헌을 들자면, 먼저 그는 수학을 논리적으로 환원하여 그 기초에서부터 설명하려는 수리철학적 시도를 했다. 그의 제자이자 동료인 버트란트 러셀과 함께 집필한 『수학원리』가 그 대표적인 노력이다. 또한 철학적으로는 그는 근대과학과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과정철학(Process Philosophy) 혹은 과정-관계적 사상(Process-Relational Thought)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철학체계를 제시하여 현대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유기체적 사고(organic thinking)의 길을 열었다.

이 논문은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의 기독교 변증학적 가치를 연구한다. 이 논문은 그의 철학이 기독교 변증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그것을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먼저 이 논문은 근대철학자들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화이트헤드의 철학적 이력과 주 저서들을 소개한다. 이어 이 논문은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어떤 점에서 기독교의 변증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적 설명을 통해서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기독교 변증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화이트헤드 철학이 가진 기독교 변증학적 공헌의 한계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며, 전개 및 기술방식은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필자는 까다로운 철학적 주장의 설명에 필요한 지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화이트헤드의 저술의 분석에 치중하고자 한다. 이는 이 논문의 주장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논의나 자료들을 극히 제한적으로 소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글이 학계간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을 위해 되도록 평이한 용어 사용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철학자로서의 화이트헤드와 주요 저서들

화이트헤드의 철학적 이력은 매우 흥미롭다. 그는 원래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1884년부터 모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쳤다. 1910년 런던으로 이사한 후 그는 런던의 몇몇 대학에서 수학과 공학을 가르쳤으며 런던대학에서 자리를 잡고 교육행정가로서도 다양한 활동을 했다.

화이트헤드는 제자인 버트란트 러셀과 함께 1910년부터 13년까지 『수학원리(Principia Mathematica)』 3권을 출간하면서 수학의 기본원리들을 논리학으로 풀어내고 시도하는 수리철학 분

야에서 인정받는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후에 이러한 수리철학적 작업을 포기하고 과학철학의 방향으로 그의 학문적 관심을 확장시키게 되었다.³

철학자로서의 화이트헤드의 최초의 알려진 철학적 저술로는 1920년에 출간된 『자연의 개념(Concept of Nature)』이 있다. 타너초청강연에서 행한 이 강의에서 화이트헤드는 자연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을 철학적으로 고찰하면서, 과학적 원리들보다 더욱 근본적인 사물의 관계성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과학적 발견과 원리들은 사물들의 더욱 본질과 관계성의 일면을 드러내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같은 위대한 발견도 사물의 본질적 관계성의 한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강연은 화이트헤드의 과학철학적 사유능력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후에 그의 철학사상의 핵심이 되는 개념들이 초기형태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한 예를 들어보자.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형성할 때 시간과 공간의 추상화를 피해야만 하며, 자연의 궁극적인 사실들, 즉 사건들로 돌아가야 한다 (Whitehead, 1920: 180).” 이 말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과 같은 자연과학의 원리들과 이에 따른 인식은 필연적으로 추상적이고 부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논의할 때 더욱 근본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이트헤드가 사물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개념으로 제시하는 것이 “사건-입자(event-particle)” 용어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제시하는 자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을 철학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인정받은 화이트헤드는 1923년에 아리스토텔레스학회의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화이트헤드에게 본격적인 철학자로서의 길은 그가 수학교수직을 정년퇴임한 후에 열리게 되었다. 63세가 된 1924년 화이트헤드는 하버드 대학교의 초청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곳에서 철학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 철학강의를 통해서 화이트헤드는 본격적으로 근대과학과 근대철학의 연구와 비판에 힘을 쏟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물로서 근대과학과 근대철학을 넘어서는 철학적 우주론의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20세기 최고의 수학자가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하버드시절 최초의 철학저서는 1925년에 출간된 『과학과 근대세계(Science and Modern World)』였다. 이 책에서 그는 근대과학과 근대철학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이 둘 다가 과학적 유물론(scientific materialism)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과학적 유물론은 물질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사물로서 본다는 점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적 유물론은 양자역학과 같은 현대과학의 성과들과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인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화이트헤드는 과학에 대해서 근본적인 철학적 비판과 재

3) 둘의 학문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러셀은 화이트헤드를 “혼란한 머리(muddled head)”이라고 비판했으며, 화이트헤드는 러셀을 “단순한 정신(simple minded)”라고 응수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오기도 한다.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이것은 『자연의 개념』에서 그가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1927년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인식론을 정리한 『상징주의, 그 의미와 영향(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을 출간했다. 이 책은 같은 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그가 행한 바버-페이지 특강에 바탕을 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이 책에서 칸트로 대표되는 근대철학의 인식론을 극복하는 일원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새로운 인식론의 체계를 제시한다.

근대과학 및 근대철학의 비판을 수행하고 새로운 인식론의 체계를 구성한 화이트헤드는 마침내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철학체계를 세우고자 시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그는 새로운 존재론의 개념들을 고안하였으며, 또한 이들 개념에 기반한 철학적 우주론을 제시했다. 그의 우주론은 미학과 도덕과 종교를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담고자 했다. 이러한 우주론적 체계를 제시한 책이 1929년에 출판된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이다. 그는 이 작업을 먼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개최하는 기포드강연(Gifford Lectures)에 초청받아 1927-28년 사이에 발표하였고, 이듬해인 1929년에 출판하게 된다.⁴ 이 책은 화이트헤드를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형이상학자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해 주었다.

화이트헤드는 그 외에도 1926년에 『형성과정에 있는 종교(Religion in the Making)』를, 1929년에는 『교육의 목적(Aims of Education)』과 『이성의 기능(The Function of Reason)』을 출판했다. 또한 1933년에 그는 『관념의 모험(Adventures of Ideas)』을, 1934년에는 『자연과 생명(Nature and Life)』을 출간했다. 그리고 그는 1938년에 『사고의 양태(Modes of Thought)』를 출간했다. 하버드 시절에 화이트헤드가 수행한 일련의 철학적 노력들은 근대과학과 철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돌파구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과학적 논리에 뒤처지고 파편화되어버린 철학이 다시금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과학적으로도 의미있는 철학적 세계관을 제시해 주었다.

II. 화이트헤드 철학의 기독교 변증학적 공헌

1. 근대과학에 대한 비판을 통한 과학적 유물론의 극복

하버드대학에서 행한 로웰특강이었고 1925년에 출간된 『과학과 근대세계(Science and Modern World)』에서 화이트헤드는 16세기에 시작되어 20세기 초에 이르는 서구 과학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

4) 『과정과 실재』는 흔히 그 난해함 있어서 칸트의 주저서인 『순수이성 비판』에 비교되기도 한다. 그가 에딘버러 대학의 초청으로 기포드 강연을 할 때 첫날은 그의 『과학과 근대세계』를 읽었을 팬독자들이 구름떼처럼 많이 참석하였으나 끝까지 자리를 지킨 청중은 몇 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난해함은 그가 고등수학의 논의들을 포함시킨 것도 이유이며, 그가 새롭게 만든 철학용어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된다.

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연구에서 그가 발견한 한 가지는 근대과학에 있어서 유물론이 주도적이라는 사실이었다: “세 개의 세기들 전반에 걸쳐서 주도적인 음조(note)는 유물론의 교의가 과학의 개념들에 적합한 바탕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Whitehead, 1950: 113).” 그는 과학적 유물론(scientific materialis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환원 불가능하고 무감각한 물질, 혹은 질료가 우주 공간 전체를 통해서 배열된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궁극적인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다. 그 자체에 있어서는 이러한 질료는 무감각하며, 무가치하고 무목적적이다. 그것은 그것의 존재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관계성에 의해서 부과된 고정적인 과정을 따라 그것이 하는 바를 행할 뿐이다(Whitehead, 1950: 17).”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현대과학의 새로운 발전이 이러한 과학적 유물론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다. “현 시대(present epoch)의 음조는 물질적인 공간, 시간,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복잡성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의 교조적인 전제들이 주는 단순한 안정은 사라지고 말았다(Whitehead, 1950: 113)”고 그는 쓰고 있다.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19세기부터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과학에게 새로운 종류의 영속성(permanence)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영속성은 영속적인 물질로부터 영속성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빼앗는다(Whitehead, 1950: 101).” 더 나아가서 질량과 에너지의 호환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발견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져온다. 즉,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에너지의 하나의 단위에 붙이는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Whitehead, 1950: 102). 또한, 과학의 자기장 분야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으로 밀려나가게 되는데, 전기-자기장(electro-magnetic fields)의 계산에 있어서 물질 - 이 경우에는 에테르(ether) - 은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와 유사하게, 과학에서 물질적 존재로 여겨져 온 원자(atoms)와 같은 것들은 이제는 복잡한 유기체들이 증명되었다(Whitehead, 1950: 102; 1978: 78).⁵

따라서, 과학적 유물론은 우리가 도달한 새로운 과학적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화이트헤드는 주장한다(Whitehead, 1950: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과학의 유물론적 원리들은 지금도 과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⁶ 따라서 현대 과학은 유물론적인 전제들을 거부해야 한다.⁷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과학적 유물론의 오류를 “잘못된 구체성의 오류(the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라고 이름짓는다(Whitehead, 1950: 51). 그 이유는,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것임에도

5) 이 외에도 화이트헤드는 과학적 유물론이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하는데, 예를 들면 과학적 유물론이 살아있는 유기체를 이해하는데 무능력한 것과, 귀납적 방법이 갖고 있는 문제, 양적인 제한성, 단순한 위치의 교리 등이다. SMW 41-56을 보라.

6) 화이트헤드는 과학적 유물론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것이 상식에 편리하게 호소한다는 사실을 한 이유로 든다. SMW 52를 보라.

7) 화이트헤드는 실제로 뉴턴 우주론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오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감각적 인지, 텅빈 공간, 운동, 물질, 중력의 법칙 등등의 개념들은 현대물리학에서 무용한 것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불구하고 과학적 유물론은 그것을 사물의 바탕에 있는 가장 구체적인 존재자라고 그릇된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과학과 근대세계(Science and Modern World)』에서 이처럼 근대과학을 날카롭게 비판한 것은 당시의 학계와 일반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철학자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었다.

화이트헤드가 이처럼 근대과학을 비평한 것의 기독교적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과학이 더 이상 물질주의를 고수하지 않고, 자연적 세계가 소위 “비물질적인 원인들”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당위성을 과학사적으로 그리고 과학철학적으로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학이 더 이상 방법론적 유물론을 고집할 수 없으며, 철학적 유물론에 매어 있어서는 더더욱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실은 과학이 자연현상에 대한 기독교적 설명들, 즉 “영적 원인들”에 대해서도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근대철학의 오류비판을 통한 철학적 유물론의 극복

화이트헤드는 근대과학의 잘못된 전제인 과학적 유물론이 근대철학과 인식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을 『과학과 근대세계(Science and Modern World)』에서 정확히 관찰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데카르트와 그 후예들의 손에 의해서 이뤄진 철학의 부흥은 그 발전과정에서 과학적 우주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전적으로 채색되었다. 모든 철학은 이런 혹은 저런 방식으로 그것들 [과학적 유물론적 사상들]을 통째로 삼키도록 뭉였다(Whitehead, 1950: 17).”⁸⁾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다른 저서에서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근대과학의 유물론적] 원리들의 일반적인 결론들은 전체적으로 완강하게 유지되었다. 그 결과는 과학적 사유와 철학적 우주론과 인식론에 있어서 전적인 혼란이다(Whitehead, 1968: 132).”⁹⁾ 화이트헤드의 이러한 관찰과 결론은 참으로 정확하며, 유물론에 예속된 근대철학의 근본적인 한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용기있는 증언이 아닐 수 없다.

(1) 근대철학의 유물론적 실체개념 비판

근대과학이 근대철학에 끼친 유물론적 영향의 한 예로 화이트헤드는 “물질적 실체(material substance)” 개념을 들고 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두 종류의 실체들을 가정했다. 그 하나는 정신적 실체이며 다른 하나는 물질적 실체였다. 여기에서 실체란, 하나의 존재자가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자신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존재자를 말한다(Whitehead, 1950: 144). 데카르트와 그 이후의 유럽철학이 물질에 대해 이러한 실체성을 부여했다는 것은, 물질 개념에게 존재론적으로 궁극적인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유물론을 존재론

8) []의 내용은 설명을 위해 첨가되었다.

9) []의 내용은 설명을 위해 첨가되었다.

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물질적 실체의 교리는 온갖 종류의 형이상학적 문제들과 인식론적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화이트헤드가 근대철학이 과학적 유물론에 의해서 대혼란에 빠졌다고 애석해 하는(Whitehead, 1950: 56)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이다.

물질적인 실체의 교리가 초래하는 문제점의 한 예를 들어보자. 만일 정신적인 실체와 물질적인 실체가 이처럼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실체라면, 이 두 실체는 어떻게 서로 결합하거나 상호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 두 실체를 인정하는 철학은 이처럼 답이 없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데카르트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풀기위해서 인간의 뇌 안에 있는 송과선(pineal gland)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샘을 이 두 실체간의 접촉점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데카르트의 후예들도 이런 혹은 저런 유사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결국에는 두 개의 실체 가운데 하나의 실체가 더욱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물질적인 실체 쪽으로 다수의 선택은 기울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원하지 않은 사상가들은 회의주의자가 되었다.

두 실체의 문제를 인식론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인간의 인식, 즉 인간의 정신이 물질적 대상들을 지각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참된 지각과 잘못된 지각을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정당한 질문들에 대해서 근대철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인식의 주관인 정신적 실체와 인식의 대상인 물질적 실체 사이에는 본유적으로 공유되는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골치아픈 문제를 풀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인식작용에 필요한 주관과 객관의 관계성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속성들(qualities)들이 공들여서 제안되었지만, 데이빗 흄(David Hume)과 같은 철학자는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지각이 대상 자체에 대한 인식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각성은 바로 회의주의(skepticism)로 이어졌다.

(2) 칸트의 인식론적 종합 비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이 두 가지 실체간의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거리를 다리 놓기 위해서 분투했다. 『순수이성비판(Critique of Pure Reason)』에서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는 하나의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다: “[감각적] 직관이 없는 개념은 공허하며,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Kant, 1963: 93). 이것은 참된 인식은 물질적인 대상으로부터 오는 감각적 경험자료와 주관적 정신으로부터 오는 개념의 결합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며, 우리는 또한 개념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식의 문제는 이러한 분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진정한 문제는 물질적 대상으로부터 오는 감각적 직관과 정신적 주관으로부터 오는 개념의 통일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통일성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칸트는 인식의 이 두 과정을 통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각각의 과정에 작용하는 보편적인 형식들을 제안했다. 그는 감각적 지각에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형식들을 제시했고, 개념적 인식에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제시했던 보편적인 범주들을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인식작용은 시간과 공간의 형식을 통해서 경험되며, 그리고 보편적 범주의 형식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칸트가 제시한 인식론의 과정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집 앞 공원에 피어있는 철쭉꽃 들을 본다고 하자. 이 인식은 우선 빛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감각적 직관의 자료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특정한 색과 특정한 형상을 눈을 통해서 인식의 재료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은 보편적인 개념들, 즉 범주를 통해서 이것을 분류한다. 그것의 숫자, 그것의 양, 그것의 색깔, 그것의 질감 등 우리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분류체계를 통해서 이것을 개념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개념화의 과정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붉은 철쭉이라고 하는 개념적 판단을 하게 되며, 하나의 개념적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전단계의 감각적 인식은 시간과 공간의 형식을 통해서 이뤄지며, 다음 단계의 개념적 인식은 인간정신의 규칙인 근본적 개념, 즉 범주의 형식을 통해서 이뤄진다.

칸트가 이처럼 명료하게 설명한 인식의 틀은 마침내 물질과 인간의 정신, 이 두 이질적 실체 간의 인식론적 관계를 해명해주는 탁월한 해결책으로 철학계에서 큰 환영을 받게 되었다. 감각적 경험론의 주장과 보편주의적 합리론은 마침내 칸트의 비판철학에서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고 종합을 보게 됨으로써 칸트의 명성은 전 유럽에 알려졌다. 그리고 이로써 흄과 같은 회의주의자들의 비판에 맞서서 근대과학의 물질적인 인식에 마침내 철학적 기초를 부여해 준 것으로 과학계에서도 이것을 환영했다.

그러나, 칸트의 이러한 종합 역시도 이원론적 실체관이 던져준 딜레마를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우리의 감각적 지각과 우리의 개념적 인식의 과정은 서로 온전히 상응하는 진리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공원에서 본 것은 정말로 빨간 철쭉임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정당한 질문에 칸트는 대답해야 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선험적 경험론”과 “선험적 분석론”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간극이 있음을 그는 부인할 수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한 칸트의 최종적인 해답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었다. 즉, 선천적인 개념들, 즉 범주들(categories)이 이 두 과정 모두를 통일적으로 주도한다는 것이다. 인식의 후반과정인 개념적 인식의 과정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선천적 개념들은 또한 인식의 전반과정인 감각적 인식 즉, 지각(perception)의 과정 전체에도 통일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식의 주체가 되는 정신은 또한 감각적 지각의 과정을 통일적으로 지배한다. 여기에서 구성(constitution)의 개념이 나타난다. 인식의 주체인 정신은 인식의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칸트 역시도 주관주의에 빠지고 말았다고 화이트헤드는 지적한다. 이것은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로크나 흄과 같은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칸트 역시도 결과론적으로 유아론에 가까운

주관주의(solipsistic subjectivism)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Whitehead, 1978: 152). 칸트의 철학에도 객관적 인식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을 실체로 인정하여 2원론을 피할 수 없었던 근대 인식론의 당연한 결말인 것이다.

유물론적 실체의 교리가 철학적 인식론에 끼친 또 하나의 파괴적인 결과는 비물질적인 지각을 인식에서 몰아낸 것이다. 대세가 되어버린 과학적 유물론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철학의 상황과, 또한 절대적 확실성에 대한 합리주의적 충동으로 인해서 근대 철학자들은 그들에게 명백하고 확실한 것들로 그들의 논의를 제한하고자 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예를 들어, 칸트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계(phenomenal world)를 그렇지 않은 가상계(noumenal world)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리고 그는 철학적 인식의 대상을 오로지 현상계에만 두었으며, 가상계, 즉 비물질적인 대상들을 철학적 인식의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퇴출시켰다. 인식론에 있어서 이러한 물질적, 감각적 선택은 인식론에 어떤 확실성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물자체(things in themselves)와 비물질적인 대상을 철학적 인식론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엄청난 우를 범해 버렸던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단지 우리의 감각기관에 즉시 포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더욱 크고, 진정으로 실재하는 세계를 희생해 버린 것이다. 마치 콘크리트벽과 삼중창과 방충망과 폐쇄 냉난방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하고 컨트롤하는 아파트 실내공간만을 세계로 이해하는 유아들처럼, 모든 불확실한 것들, 개념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배제하는 근대인식론은 크고 넓은 세상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칸트와 그 후예들의 이러한 선택이 기독교와 종교 일반에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다. 종교가 증언하는 영적인 실체들은 인식론으로부터 완전히 퇴출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칸트와 그에 동조한 근대철학은 과학을 회의주의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대상들을 포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편의성이 철학의 원리가 될 수 있는가? 감각적 인식만이 철학의 전부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대 인식론의 근본적인 결함들을 비판하면서 화이트헤드는 과학적 유물론에 기반한 두 실체의 교리를 거부한다. 그는 실체적 정신과 실체적 물질 모두를 앞에서 말한 “잘못된 구체성의 오류”로 규정한다(Whitehead, 1978: 7). 정신과 물체의 개념 모두가 복합적인 유기물에 붙인 추상적 이름들이며, 따라서, 이것들을 사물의 기초에 있는 실재적인 존재자로 여기는 것은 잘못 붙여진 구체성이며, 과장인 것이다(Whitehead, 1978: 7).

(3)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론 비판

근대철학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비판은 근대철학의 방법론 비판으로도 이어진다. 첫째로, 화이트헤드는 근대철학의 연역적 방법론을 비판한다. 연역적 방법론 전체는 절대적으로 명료하고 참인 일련의 전제들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제들, 즉 제1원리들은 철학에 절대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

다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최종적인 일반성에 관한 정밀한 표현은 토론의 목적이 그 근원이 아니다(Whitehead, 1978: 8).” 그의 다른 저서에서도 우리는 유사한 주장을 볼 수 있다. “만일 하나의 연역이 하자가 있는 전제들에서 시작한다면, 전체 논증이 실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연역적 철학은 그들의 전제들이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명백한 경험들과 직관들을 정당성 없이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철학의 주된 위험은 부적절한 공식으로부터의 변증적인 연역이 직접적인 직관들을 명백하게 주목하는데 실패하게 하는 것이다(Whitehead, 1967: 139).” 이것은 칸트를 비롯한 근대철학자들의 방법론적 오류를 지적하는 화이트헤드의 명쾌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철학이 우리 경험의 무한하게 다양한 요소들을 분류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범주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경우에 관계되는 증거들에 호소해야 하며, 그 어느 것도 생략되어서는 안된다(Whitehead, 1967: 226)”고 화이트헤드는 주장한다. 여기에는 물론 신앙적 경험들도 포함된다.

귀납적 철학방법에 대해서도 화이트헤드는 오직 부분적으로만 동의를 표시한다. 귀납이란 우리의 지식을 늘리는 명백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실험이 단지 제한된 일부의 사건들(occasions)에 대해서만 타당하다는 한계를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경우들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귀납적인 결론을 일반화 할 수 없다. 또한, 귀납적 방법 자체도 어떤 가정이나 형이상학을 전제하고 있다(Whitehead, 1950: 44). 예를 들어서, 귀납적 방법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떤 원리적 관념들을 전제하고 있다. 만일 이들 관념들이 바뀐다면 귀납적 결론들도 바뀔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귀납적 방법은 오로지 적절하게 이해될 때에만 유효하다(Whitehead, 1950: 44). 근대 철학의 귀납적 사유의 문제는 그것의 기반이 되는 평가기준이 오류라는 사실에 있었다. 따라서 화이트헤드는 귀납적 방법이 자연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드러내 줄 것이라는 경험론자인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단순한 소망을 거부한다.

결과적으로 화이트헤드는 철학이 근대철학의 틀을 벗어버리고 더욱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사유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다. 다시 말해서 화이트헤드와 함께 철학은 과학적 유물론의 틀을 깨고 인간 경험과 사유의 본질을 다시 근본적으로 성찰하도록 요청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성찰에는 신앙적이고 신학적 성찰의 회복도 포함된다. 기독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화이트헤드가 실체론적 존재론을 거절한 것과 실체론적 사유의 결과인 근대 인식론의 근본문제들을 지적한 것은 종교적 대상으로서의 신을 철학과 인식론에서 배제한 근대철학이 근본적인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지적하는 변증학적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기독교 변증학은 화이트헤드와 함께 철학과 과학은 인간의 종교적 경험과 신의 존재의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과거 시대의 산물인 과학적 유물론의 허상을 털어버릴 것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3. 일원론적 존재론과 인식론의 제시를 통한 영적 존재론과 인식론의 가능성 제시

1924년부터 화이트헤드는 하버드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에 그는 본격적으로 대안적인 철학의 체계를 구상하게 된다. 화이트헤드는 앞에서 소개한 1925년의 『과학과 근대세계(Science and Modern World)』에서 이미 자신의 유기체적 철학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그 후 1927년에 출간된 『상징작용: 그 의미와 결과(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에서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새로운 인식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화이트헤드가 자신의 철학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은 1929년에 출판한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에서였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구상한 철학적 우주론을 제시한다. 이 책의 부제목은 그래서 “우주론 에세이”이다. 『과정과 실재』가 제시하고 있는 화이트헤드의 우주론을 이 논문이 전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우주론이 제시하는 새로운 일원론적 존재론과 확장된 인식론의 핵심개념들을 소개하는 정도로 그의 공헌을 가늠하고자 한다.

(1) 현실재 혹은 현실적 존재자

근대철학의 존재론과 인식론의 유물론적 경향과 그 결과물인 이원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화이트헤드는 새로운 일원론적(monistic) 존재개념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한 이 존재자의 이름은 “현실재(actual entities)” 혹은 “현실적 존재자(actual occasions)”이다. 현실재가 현실적 존재자로 불리는 이유는 이것들이 가장 구체적인 경험, 혹은 “한 방울의 경험”이기 때문이다(Whitehead, 1978: 18). 이것들은 우주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존재자이다(Whitehead, 1978: 22).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 현실재들은 세계를 구성하는 최종적인 요소이다(Whitehead, 1978: 18). 최종적인 실재이자 실존하는 모든 것들의 구성요인이라는 면에서 이들 현실재들은 근대철학의 실체 개념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Whitehead, 1978: xiii). 그러나 현실재는 실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실체는 외부세계와 단절된 독립성을 전제하는 반면, 현실재는 다른 모든 존재자들로부터 생성되며 다른 모든 존재자들의 형성에 기여하는 관계성을 본질로 한다. 둘째로, 정신과 물질로 나뉜 근대철학의 실체론과 달리 화이트헤드의 현실재의 경우 한가지의 실재가 정신과 물질 모두를 구성한다. 다시 말해서 현실재는 정신도 아니며 물질도 아니다. 그러면서 현실재는 정신을 구성하기도 하며 물질을 구성하기도 하는 더욱 근본적인 실재인 것이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철학을 형이상학적 원자론(metaphysical atomism)으로 부르기도 한다(Whitehead, 1978: 35). 이러한 일원론적 실체관을 통해서 화이트헤드는 근대철학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있다.

(2) 파악 혹은 느낌의 인식론¹⁰

화이트헤드가 근대철학의 유물론적 존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재”라는 일원론적 개념을 제시

10) 파악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저자의 줄고 “화이트헤드 철학에 비취본 성령 하나님의 사역 (2010)”의 감성론 부분을 참고하라.

했다면, 근대 인식론의 이원론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제시하는 것이 “파악(prehension)”의 개념이다. 이 개념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파악을 근대철학의 인식론적 개념들과 비교해보면 된다. 영어단어로 보면 파악(prehension)은 이해(apprehension, comprehension)라는 근대철학적 개념에서 접두어들을 떼고 뿌리개념만을 가져온 것이다. 그 의도는 이해의 작용에서 인간 지성의 작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해의 개념은 인간이 대상과 관계하는데 있어서 지성의 작용이 필요하며, 또한 언어적 상징작용이 필요하다는 인간중심적이고 이성주의적인 관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여 모든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적 작용 전체를 주목하고, 이들 관계들을 모두 인식적 작용으로 인정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 있는 이러한 포괄적이며 좀 더 근본적인 인식작용을 나타내는 전지성적(pre-intellectual), 전언어적(pre-lingual), 전의식적(pre-conscious) 개념으로 화이트헤드는 파악(prehens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파악은 현실재들이 다른 현실재들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화이트헤드 철학에 있어서 파악은 또한 새로운 존재자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활동이기도 하다. “파악”은 기존의 현실재(actual entities)들이 상호관계를 맺는 활동이며, 이 활동의 결과로서 새로운 현실재가 생겨나게 된다. 이처럼 새로운 현실재들을 생성하기 때문에 파악은 또한 창조적인 활동이기도 한 것이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활동을 가리키는 파악 개념이 가진 이와 같은 근본적인 중요성 때문에 파악은 현실재의 개념에 버금가는 화이트헤드 철학의 핵심적인 실존범주(category of existence)이다 (Whitehead, 1978:22).

파악은 또한 느낌(feeling)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느낌”은 하나의 현실재가 다른 현실재들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고 수용할 때의 파악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파악”을 느낌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느낌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 개념이 인간의 감성(emotion)작용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파악의 개념이 인간의 지성적 인식 작용을 넘어서서 모든 존재자들 간의 인과관계 전체를 포괄하는 관계성의 개념이듯, 그것의 긍정적 수용의 기능을 가리키는 느낌 혹은 감성 개념 역시도 인간의 감성적 작용을 훨씬 넘어서는 근본적인 관계개념인 것이다.¹¹

(3) 상징작용의 인식론

1927년 화이트헤드는 『상징주의, 그 의미와 영향(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에서 그의 새로운 인식론을 전개한다. 현실재를 통한 일원론적 존재론을 전개하며, 현실재들의 관계성의 활동으로 파악을 제시하는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인식이란 하나의 현실재가 다른 현실재를 내면화시키는 연

11) 화이트헤드는 근대철학과 구별되는 다양한 개념들을 만들어 썼는데, 이 새로운 개념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혼란을 주기도 한다. 느낌(feeling) 개념이 그 하나의 예인데, 자신의 포괄적인 개념정의와 달리 화이트헤드 자신이 그것을 인간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감정적인 다른 용어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화이트헤드의 경향성을, 파악의 기능이 지성보다는 감성적 기능에 가깝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이다.

관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식은 만물의 보편적인 활동이며, 이것을 화이트헤드는 직접적 인식(direct recognition)이라고 부른다. 모든 존재자들은 직접적 인식을 통해서 다른 존재자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 역시도 다른 존재자들을 직접적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세포들은 직접적, 지속적으로 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만물은 인식한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접적 인식에만 멈추지 않는다. 인간은 또한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인식에 있어서는 정신이 인식활동에 개입하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적 작용의 개입은 상징(symbol)을 매개로 해서 이뤄지며, 이렇게 상징으로 매개되어지는 인간의 정신적 인식을 화이트헤드는 상징적 연관(symbolic reference)이라고 부른다. 상징적 연관이란 상징으로부터 의미로 이행하는 유기적 작용이라고 정의된다(Whitehead, 1927: 8). 인간의 인지작용은 인식의 대상에서 인간이 발견하는 다양한 상징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상징들을 우리의 개념과 의미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상징적 연관의 과정에서 우리는 인식의 대상들을 우리 자신에게 연결시키면서 그 대상들에 대한 적절한 개념과 의미와 지식을 수확하게 된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상징적 연관은 인간 인식자가 저 밖에 있는 실제적인 세계를 경험의 자료로 만드는 기능이다.

화이트헤드가 상징적 연관을 통해서 설명하는 의식적 인식의 과정은 일정 부분 근대철학의 인식론과 유사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적 인식은 주체와 객체의 형식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의 인식론을 다른 근대철학의 설명을 일정 부분 따라가게 된다.

그렇다면 화이트헤드의 인식론은 어떻게 근대 인식론의 과정과 어디에서 갈라지며, 어떻게 근대 인식론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일까? 우리는 우선 앞에서 소개한 화이트헤드의 근본적 개념들이 가져다주는 인식론적인 공헌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화이트헤드는 정신과 물질의 2원론을 거부하고 현실재의 일원론적 존재론을 제시함으로써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 간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해소했다. 주체와 대상 모두는 형이상학적으로 동질적인 현실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식은 동질적인 존재자들 간에 이뤄진다. 이와 같은 화이트헤드의 일원론적 존재론은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두 가지 실체들의 관계성을 추구한 근대 인식론의 존재론적인 딜레마를 해소한다. 또한 대상들에 대한 작위적인 구분도 불필요해진다. 예를 들어 칸트의 인식론 체계가 가진 물자체로서의 대상과 현상으로서의 대상의 2분법 같은 것이 불필요해진다. 칸트는 인식에서 물질적 대상만을 다루고자 이러한 구별을 제시했는데, 일원론적 존재론에서 물질, 비물질의 구분은 추상적이고 작위적인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로, 화이트헤드는 독립적인 자존을 본질로 하는 실체(substance) 개념을 거부하고, 관계성을 본질로 하는 관계적 실재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인식의 활동을 존재의 외연적이고 우연적인 활동이 아니

라,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이고 내면적이며 생성적인 활동으로 격상시켰다. 앞에서 우리는 파악의 활동이 실재성을 가진다고 말한 바 있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관계성을 갖는다. 따라서 인식은 존재의 본질이며, 존재를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활동이다. 이것은 존재와 인식을 구별하는 2분법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인식론의 딜레마를 극복한다.

셋째로, 화이트헤드가 제시하는 파악의 활동은 모든 현실재의 공통된 속성이기 때문에 인식활동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활동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모든 존재자들은 인식의 주체(subject) 이면서 동시에 객체(object)가 된다. 화이트헤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객체(superjec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인식을 모든 존재자들의 상호인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인식이 인간정신의 고유한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며, 인간의 의식적 인식활동은 인식의 특수한 한 영역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인간의 인식활동은 다른 존재자들의 인식활동과 비교하면 극히 제한되고, 고도로 추상화된 특수한 인식활동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존재자들은 직접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이 개입하는 인식은 상징작용을 통해서 해석되고 간접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화이트헤드의 상징적 인식론을 알아보자. 그는 상징적 연관에서 두 가지의 구별된 인지 양식 혹은 단계를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인과적 효력 양식의 인지(perception in the mode of causal efficacy)”이다. 인과적 효력이란 대상, 즉 주체와 관계성 속에 있는 현실재들의 영향이 주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한다. 칸트적으로 말하자면 이 단계에서는 인지의 대상 혹은 자료가 인지주체에게 제시된다. 이러한 인과적 효력의 인식단계를 제시함으로써 화이트헤드는 대상이 실제로 우리의 인지에 제시된다는 것을 확증하며, 인식의 효력이 대상 자체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증한다. 칸트의 경우 이러한 대상을 감각적 대상인 현상으로 제한하였으나 화이트헤드에게 이러한 제약은 불필요하다. 또한 칸트의 경우 이러한 인식의 영향은 우연적이지만,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이며 본질적이다. 인과적 효력의 단계에서 우리의 인지는 대상들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구성되어지며, 따라서 인식은 진정으로 대상들에게 일치된다(truly conformal to the objects) (Whitehead, 1927: 41). 이것은 인식의 대상 자체(things in themselves)와의 일치성을 포기한 칸트적 인식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Whitehead, 1927: 40-41).

상징적 연관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표상적 직접성의 양식으로서의 인지(perception in the mode of presentational immediacy)”이다. 표상적 직접성란 현재의 외부적인 세계의 즉각적인 인지가 우리 자신의 경험의 구성요소로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Whitehead, 1927: 21). 다시 말하자면, 인식의 대상들이 인간의 의식적 경험의 지평으로 떠올라서 의식적으로 포착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진전된 인지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인식의 대상들은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명확하고 독특한 대상으로 의식적으로 인지된다(Whitehead, 1978: 61). 이러한 인식단계의 결과로 우리는 더

욱 진전되고, 처리되고, 독특하고 명확한 인지를 하게 된다. 이 단계의 인식은 칸트에게 있어서의 감각적 작용과 개념화 작용과 유사하다. 이러한 표상적이고 개념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 인지활동은 좀 더 명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화이트헤드와 칸트의 인식에서 한가지 중요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화이트헤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대상의 인지는 우리의 의식의 조작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인지의 근원이 되는 인식대상에 덜 정확해 진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식에 명확성을 가질수록 대상의 참된 모습에서는 멀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칸트가 보지 못한 것이다. 칸트는 우리의 개념화 작업이 인식을 명료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서 대상을 더욱 확실하게 포착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우리의 개념화 작용이 인식을 명료하게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대상은 불확실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개념은 추상이다. 상징은 추상이다. 개념화 이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한 것이 더 확실한 인식이며, 인간의 지성은 그것을 개념화하고 처리하는 상징작용을 통해서 가공하고 그리고 왜곡한다. 지성의 인식작용에 대한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 관점을 통해 화이트헤드는 근대 합리주의 인식론의 오만을 전복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인간지성의 작용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이러한 비판은 마치 화이트헤드가 인식론적 회의주의 입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화이트헤드는 주관적이며 고도로 추상화된 지성적 인식이라도 대상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인식론적 진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왜곡과 추상화에도 불구하고 표상적 직접성 양식의 단계가 여전히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인지는 것을 화이트헤드는 인정한다. 이 말은 화이트헤드의 인식론이 실재론적 관점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 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화이트헤드의 인식론은 인식 주체와 대상들을 일원론적으로 재구성하고 인식의 범위를 보편적으로 확장시킴으로써 근대철학의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한다. 그리고 새로운 인식론의 바탕 위에서 화이트헤드의 우주론은 견고하게 전개된다. 이렇게 보면 화이트헤드의 인식론은 그의 우주론을 기술적(technical)으로 해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인식의 주체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모든 주체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 주체들로부터 만들어진다. 또한 두 가지 양식의 인지를 구별함으로써 화이트헤드는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보증하며, 또한 인지작용의 후기 단계에서 작용하는 주관적인 측면을 또한 인정한다. 우주론적으로 말하자면 전자인 인과적 효용성이 우주의 결속을 보증하며, 후자인 직접적 제시와 그 후의 지적인 전개들은 우주에 창조적인 변혁을 제공한다고 화이트헤드는 보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인식론의 의의는 무엇인가? 일원론적 존재론과 보편적이고 실재론적인 인식론은 막다른 골목에 처해있는 근대 인식론을 인식론적 불가능성으로부터 구해줄 뿐만 아니라, 근대 인식론이 종교노릇하고 있는 과학적 유물론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준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칸트의 인식론은 과학

적 유물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식의 대상을 감각적 대상들로 한정하면서 비감각적 모든 대상을 퇴출시켰고, 또한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인식론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을 거부하고 일원론적 존재론을 제시함으로써 근대 인식론의 근본적 모순을 해결하고 있다.

기독교 변증학의 관점에서 보면 화이트헤드의 이러한 인식론적 성과들은 기독교의 영적 인식을 가능하게 해준다. 부당하게 물자체의 영역으로 추방되고 정당한 인식의 영역에서 배제된 것들 가운데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당한 물자체의 감옥을 깨뜨림으로써 화이트헤드는 영적인 것, 즉 종교적 대상들과 경험들을 정당한 존재와 인식의 영역으로 복권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이트헤드의 인식론에 의하면 이런 영적이고 종교적인 대상들과 경험들에 대한 인식은 인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자들이 가진 보편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시편 기자의 말이 단지 문학적 비유가 아니라 사실적 의미를 갖게되는 것이다. 그런데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영적 인식과 하나님 인식은 단지 하나의 인식론적 가능성이 아니다. 이것은 화이트헤드의 우주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것이 다음 장의 주제이다.

4. 유신론적 우주론을 통한 기독교적 우주론 철학과 신인식의 가능성 제시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자 기독교 변증학적 공헌으로 우리는 그의 유신론적 우주론을 들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종교적 경험들을 그의 철학적 우주론의 체계 속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종교적 인식의 가능성은 앞에서 논의한 화이트헤드의 인식론을 통해서 이미 열려진 바 있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그의 우주론적 체계 속에 신의 자리를 견고하게 마련함으로써 신인식을 포함한 유신론적 우주론 철학을 전개한다.

화이트헤드의 신관은 그의 철학의 발전과 함께 심화되었다.¹² 사실 그의 초기 철학에서 신의 개념은 큰 중요성을 갖지 않았다. 그의 초기 철학적 구상 속에서 신은 하나의 논리적 필연성을 의미했다. 만물의 생성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생성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궁극적인 제한을 화이트헤드는 신이라고 불렀다(Whitehead, 1950: 178). 구체적으로 화이트헤드는 생성의 과정을 통제하는 플라톤적인 형상(forms)의 저장고(storehouse)를 신이 가진 하나의 기능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형상들을 그는 영원한 대상들(eternal objects) 혹은 순수한 가능성(pure potentials) 라고 불렀다. 이러한 영원한 대상들의 저장고로서 신의 존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상들의 조화는 곧 우주의 설계도를 의미하며, 신이 이 기능을 감당한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우주의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Whitehead, 1996: 119).

12) 화이트헤드의 신관의 발전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저자의 줄고, "A Theory of God-Perception Found in Whitehead's Epistemology"(2009)의 I. A Theistic Worldview found in Whitehead를 참고하라.

『과정과 실재』에서 화이트헤드는 성숙한 그의 신관을 전개한다. 첫째로, 그는 신을 현실재(actual entity)로 인정한다 이것은 신이 더 이상 단지 개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계 내에 실존하는 실재이며 실제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화이트헤드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신이 세계를 인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주장한다. 『과정과 실재』의 마지막 장에서 화이트헤드는 신을 우주적 과정의 중심적 행위자이자 우주의 조화를 유지하는 분으로 설명한다. 심지어 그는 신과 세계를 병렬시키면서, 신을 세계 전체에 상응하는 특별한 존재이며, 세계의 생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협력자로 제시한다. 셋째로, 신의 사역적 특징의 설명에 있어서 화이트헤드는 기독교의 신관을 받아들인다. 신은 사랑이며, 세계의 고통을 전적으로 느끼며, 또한 세계의 변혁을 주도하는 존재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신은 위대한 동행자이다. - 함께 고통받는 분이며 이해하는 분이다(Whitehead, 1978: 351)” 넷째로, 화이트헤드는 “갈릴리안 비전(Galilean Vision)”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우주론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Whitehead, 1978: 342). 이처럼 화이트헤드의 신관은 초기의 철학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우주의 인도자이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적 인격신의 이해로 나아가고 있다. 다섯째로, 화이트헤드의 신은 단지 하나의 현실재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현실재로 설명되고 있다. 모든 현실재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신의 현실재는 우주의 모든 존재자들의 생성과 소멸과 관계하는 영원성을 가진다. 그리고 현실재들의 생성을 인도하고 또 소멸을 기억으로 받아들이는 신의 현실재는 그 속성에 있어서 다른 현실재들과 다른 본질적 특성을 가진다. 모든 현실재들은 그 생성에 있어서 먼저 물리적 파악(physical prehension)을 통해서 우주를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정신적 파악(mental prehension), 즉 주체성이 형성되는데 반해서, 신의 현실재는 먼저 영원한 정신적 본성을 통해서 모든 존재자들의 생성에 관여하고 우주를 조화롭게 형성하며, 그 후에 물리적 파악활동을 통해서 소멸되는 세계를 신의 본성으로 받아들인다.

기독교 변증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화이트헤드의 후기 신관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을 세계 내에 실제하며 세계와 관계하며 세계를 생성하는 특별한 현실적 존재자로 파악함으로써, 인간을 포함한 세계 전체가 신을 가장 분명한 인식대상으로 부여받게 되었다. 모든 존재자들은 이미 신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간은 의식적인 인식 안에서 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무신론적 해석자들이나 그의 초기 철학에 집착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는 화이트헤드의 성숙한 후기 신관을 하나의 비유로서만 이해하고 폄하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화이트헤드는 무신론적 우주론이나 순수하게 철학적인 신 개념을 전개한 것이 된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의 신관은 그의 철학적 사유와 우주론 체계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여 성장해 왔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신은 인간이 경험하는 우주의 질서와 조화와 미학적인 목적들을 설

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필연적인 철학적 설명임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과정과 실재』에서 화이트헤드가 내린 결론이며, 그의 우주론은 강화된 신론으로 마무리된다.

화이트헤드의 신관이 가진 기독교적 경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의 종교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요소일 것이다. 그의 부친은 성공회 신부였으며, 그는 기독교적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의 동생 헨리는 성공회 주교가 되었다. 화이트헤드의 아내 에블린도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 비록 화이트헤드 자신은 헌신된 기독교인이기를 거부하기도 했지만, 그는 종교적 차원의 경험의 실재성을 인정했으며, 이런 관점에서 한 때 가까운 학문적 동역자였던 러셀이 가졌던 기계적 우주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화이트헤드가 볼 때 우주는 단지 실재하는 것들의 시스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화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관계성의 깊은 차원들을 가지고 있음을 그는 직관하였고 그것을 자신의 철학체계 속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인격적 하나님의 개념을 그의 우주론의 중심에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진정한 우주론은 기독교가 보여주는 사랑과 인격적 관계성의 차원을 포괄할 책무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화이트헤드의 우주론에서 유신론적이고 기독교적인 우주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5. 철학의 임무에 대한 재정의의 통한 합리주의 극복

끝으로, 화이트헤드의 기독교적 공헌들 가운데 또 한가지인 그의 철학관 자체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근대과학과 근대철학이 추구했던 체계화의 노력과 일반화를 통한 확실성의 욕구들이 과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일종의 포스트모던적인 깨달음은 그가 러셀과 함께 수학원리를 집필하면서 이미 발견한 것이기도 했다. 수학의 원리들을 분명한 논증을 통한 객관적이고 논리적 기초 위에서 연역하고자 했던 그와 러셀은 연역적 과학이라고 믿었던 수학조차도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전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화이트헤드로 하여금 이성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게 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화이트헤드가 근대과학과 철학의 전제들을 비판하고 연역법과 귀납법의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비판했던 것은 결국 인간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화이트헤드 자신의 철학은 겸손의 덕목을 놓치지 않는다. 비록 그는 우주를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서 설명하고자 우주론을 시도했지만, 인간의 이성적 노력이 모든 경험들을 완벽히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저서 『과정과 실재』에 우주론적 에세이라고 겸손한 부제목을 부여했으며, 서문에서 우주론은 경험의 영역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이론적 체계를 지향하는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겸손히 밝히고 있다. 그의 철학적 겸손은 그의 인식론 전체에서도 발견된다. 그의 인식론은 근대 인식론과 달리 확실성과 계량가능성에 매여 있지 않고, 오히

려 그것을 넘어서는 다양한 영역들, 인간의 기억이나, 심리적 경험들, 영적 경험들에까지도 겸손히 개방한다. 또한 그는 개념적, 논리적인 인간의 인식이 대상에 대한 직접적 인식이 아니며, 오히려 대상으로부터 가장 멀고, 추상적인 인식행위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성을 거부하거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화이트헤드는 경험의 실재성과 진리의 합리성을 모두 옹호했으며, 참된 인식을 위해서 철학이 철저하고 지속적인 학문비판을 통해서 오류를 극복하고 참된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상 이것이 철학의 고유한 임무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철학의 임무를 제시한다.

과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체계들은 오고 또 가는 것이다. 제한된 이해를 지닌 하나 하나의 방법들은 결국은 소진되어지고 만다. 그 전성기에 있어서 각각의 체계는 영광스러운 성공일지라도, 그것의 쇠퇴기에 있어서는 발전을 가로막는 하찮은 것이다. 이해의 새로운 과실로 나아가는 것은 상상력을 새롭게 하는 영감(靈感)의 깊이에 기댈으로써 이뤄진다. 결국 -- 끝은 없는 것이지만 -- 성취되는 것은 견해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더 큰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철학은 이제 그 최종적인 섬김을 행해야 한다. 철학은 널린 잔해들을 탈출하여 단지 동물적인 만족을 넘어서는 가치들에 예민하도록 영감(insight)을 찾아야 한다. 비록 그것이 희미할지라도(Whitehead, 167: 58)

여기서 화이트헤드가 밝히는 것은 무엇인가? 철학은 하나의 체계를 추구하는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경험되고 발견된 진리의 영감들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낡은 체계를 극복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화이트헤드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두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가운데 플라톤을 더욱 주목하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Whitehead, 167: 152 이하). 세계를 합리적 체계로서 제시하고자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플라톤은 철학이 신적인 영감에 개방되어야 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변증학의 입장에서 보면, 화이트헤드가 제시하고 있는, 합리주의와 합리성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상통한다. 기독교는 합리성을 추구하며 인간이성의 노력을 존중한다. 실상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며, 따라서 합리주의를 거부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개방하는 계시적 종교로 남는 것이다.

III. 화이트헤드 철학의 기독교 변증학적 공헌의 한계

이 논문의 II장이 제시한 것처럼,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기독교 신앙의 변증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철학적 업적들을 남겼다. 이러한 기독교 친화적인 측면들로 인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에 적용하려는 과정신학(process theology)을 발전시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과 변증학의 입장에서 볼 때 화이트헤드 철학의 기독교 신학적 공헌과 효용성에는 분명한 한계들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화이트헤드의 신관이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에 미치지 못한다. 첫째로, 화이트헤드의 철학 속에서 신은 하나의 현실재로서, 다른 존재자들과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이트헤드의 신의 역할은 다른 모든 현실적 존재자들과 구별되며, 그 본질 역시도 많은 점에서 현실적 존재자들과는 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존재론적으로 다른 모든 존재자들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화이트헤드의 신은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 이해와는 다르다.

둘째로, 화이트헤드의 신은 세계의 창조자도 심판자도 아니다. 화이트헤드의 사상 체계 속에서 창조성(Creativity)은 신의 속성이 아니라 신보다 앞서는 궁극적인 범주에 해당한다. 실상 창조성의 원리가 설명하는 것은 우주에 창조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은 생성되고 소멸된다고하는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적 원리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주는 자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우주 속에 한 일원으로 존재하는 신은 새롭게 생겨나는 존재자들을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는 존재이며, 또 시간 속에서 사멸되는 존재자들을 신의 기억 속으로 통합시켜 영원히 보존하는 존재이다.

또한 화이트헤드의 신은 하나의 현실재로서, 삼위일체가 아니며, 삼위일체와 유사한 본질적인 복합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의 사상 속에서 기독교 신학이 가진 기독교론이나 성령론의 자리를 발견하기란 어렵다. 물론 이것은 철학과 신학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의 우주론이 모든 중요한 경험들을 포괄하려고 시도하는 노력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많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화이트헤드 사상의 이러한 신학적 부족함에 대해 여러 신학자들이 신학적 수정을 통해 화이트헤드의 사상적 탁월성을 신학적으로 원용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이트헤드의 하버드 강의를 들었던 제자인 찰스 하트손(Charles Hartshorne)은 화이트헤드의 신이 하나의 현실재라는 것이 신의 참된 인격성을 드러내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신을 여러 현실재들의 복합적인 결합체로 재정의하기도 했다.¹³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안이다. 기독교의 신관의

13) 화이트헤드의 신관의 발전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저자의 줄고, "A Theory of God-Perception Found in Whitehead's Epistemology"(2009)의 I. A Theistic Worldview found in Whitehead를 참고하라.

특징이야말로 인격성과 삼위일체성의 복합적 본성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의 우주론을 온전한 기독교적 우주론으로 전환하는 일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화이트헤드의 우주론은 하나의 종합적 체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을 화이트헤드 철학의 체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화이트헤드의 우주론에서 최고의 개념인 창조성(creativity)의 개념의 재정의가 필수적이다.

IV. 결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어떻게 근대과학과 근대철학의 근본 문제들을 지적하고 비판하였으며, 또한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했는지를 요약적으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화이트헤드의 이러한 철학적 노력들이 다섯 가지의 측면에서 기독교 변증학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었다: 과학적 유물론에 대한 비판, 철학적 유물론에 대한 비판, 새로운 존재론과 인식론의 제시, 유신론적 우주론의 건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철학의 목적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화이트헤드가 기독교에 선물한 이러한 사상적 공헌점들은 다른 어떤 변증학적인 성취만큼이나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근대 이후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도전이 바로 과학적, 철학적 유물론과 합리주의였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대한 이 도전들은 오늘날에도 큰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이 도전들을 극복하는 것은 여전히 기독교 변증학의 근본적인 과제가 되어 왔다. 화이트헤드의 비판은 이 도전들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응전이 되었으며, 그의 철학은 그들의 오류를 해결하는 새로운 철학적 길을 제시했다. 진리에 대한 열정과 지적인 성실성으로 화이트헤드가 행한 철학적 작업은 오늘날의 과학과 철학 뿐만 아니라 특히 기독교 사상에 참으로 근본적인 유익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된다.

비록 그의 신론적인 경험과 깨달음이 기독교 신학적인 깊이나 완결성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그의 우주론 속에서 신의 모습이 기독교 신학이나 변증학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그가 행한 철학적 작업들은 21세기에 기독교 변증학이 과학과 철학의 물음에 대답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통찰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성원 (2010). 화이트헤드 철학에 비추어본 성령의 사역. 『한국조직신학논총』 Vol. 26, 163-191.
[Kim, S. W. (2010)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the Philosophy of Whitehead.”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26, 163-191.]
- Kim, S. W. (2009). A Theory of God-perception Found in Whitehead’s Epistemology.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Vol. 66, 131-151.
- Hartshorne, C. (1948). *The Divine Relativity: A Social Conception of God*. (Terry Lectur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ant, I. (1963). *Immanuel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tr. by Norman Kemp Smith.
London: Macmillan & Co. Ltd.
- Whitehead, A. N. (1967).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London: The Free Press,
Collier-MacMillan Limited.
- Whitehead, A. N. (1920). *Concept of Na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ehead, A. N. (1968). *Modes of Thought*. New York: The Free Press.
- Whitehead, A. N. (1978). *Process and Reality - the Corrected Edition*. New York: Free
Press.
- Whitehead, A. N. (1996). *Religion in the Making*.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 Whitehead, A. N. (1950).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New York: MacMillan Company.
- Whitehead, A. N. (1927). *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Whitehead, A. N. (1929). *The Function of Reason*. Boston: Beacon Press.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철학의 기독교 변증학적 공헌

The Contributions of Alfred North Whitehead's Philosophy to Christian Apologetics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논문초록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수학자요 철학자이다. 수학자로서 화이트헤드는 버트란트 러셀과 함께 수학에 논리적 기초를 놓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들의 작업은 수리논리학의 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철학자로서 화이트헤드는 근대 과학과 철학에 대한 철저한 철학적 비판을 수행했으며, 우리 시대를 위한 독창적인 철학적 우주론을 구축했다. 그의 철학적 작업들은 근대과학과 철학의 본질적인 약점과 곤경을 극복하는 건설한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기독교 변증학의 입장에서 종종 과정사상이라고 불리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에 초점을 둔다. 화이트헤드의 철학적 주 저작들을 분석하면서 이 논문은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여러 가지로 기독교 변증학에 기여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설명한다.

이 논문은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첫째로,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독자들을 위해서 화이트헤드의 철학적 경력과 주된 출판물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둘째로 화이트헤드의 주된 공헌들을 기독교 변증학의 관점에서 소개한다. 우리는 다음 다섯 가지의 공헌을 발견한다: 과학적 유물론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비판, 철학적 유물론에 대한 비판, 그의 존재론과 인식론적 공헌, 그의 유신론적 우주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학의 목적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또한 이 논문은 말미에 화이트헤드의 철학의 공헌의 한계도 설명한다.

주제어: 화이트헤드, 변증학, 과학적 유물론, 과정 철학, 인식론, 우주론